

진안군, 군정 7대 주요성과 빛나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확정·국가예산 1781억원 확보 등 대표적 성과 선정

진안군은 16일 2021 군정 7대 성과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군정 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군정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2021년 진안군의 대표적인 성과로 7가지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용담댐 광역상수도 진안 전 지역 공급문제 해결을 꼽았다.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 반영돼 2025년까지 932억원의 투자가 시를 갖추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성과다. 군은 올해 75건의 총사업비 1,78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전주승화원을 전주시민과 동일한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업무협약 체결해 군민 편익을 증진한 것을 내세웠으며, 3차에 걸쳐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군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 점을 네 번째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다섯 번째 대한민국 SNS 대상 등 최우수 17, 우수 13, 장려상 4건 등 총 34건을 수상하는 등 대외평가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 여섯 번째 열린군수실, 정책지원위원회, 도서관 건립준비위원회 등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으로 참여행정 실현, 일곱 번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 골든볼(국무총리) 수상,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체계구축으로 전라북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편의의 제공이 올해 군정 7대 주요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2022년 큰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군정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색을 살린 농산촌형 융복합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홍삼과 곤충, 한방 등 특화산재를 결합한 건강

기능식품을 육성하며, 고수익 특화작물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행복권 보장을 위한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진안고원의 매력을 살린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치유·힐링 명품관광을 실현하여 위드코로나 시기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21년 임인년은 '신사독행(慎思篤行)'의 뜻처럼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정발전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생애·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2022~2025년 사업 추진

무주군이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난 9월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쾌거다.

무주군은 177억 원(국비 100억, 도비 17억, 군비 50억)을 투입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무주읍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애·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를 사업 명으로, △생애·ing 거점조성, △생애·ing 맞춤형주택, △생애·ing 상권 기반조성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고삐를 당긴다.

생애·ing 거점조성에는 군에서 지난해 매입한 무주 KBS 중계소 부지에 청년과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지상 3층 생활문화어울림센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반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읍내 2지구 급경사 구역(읍내리 250-5번지 일원)에는 지상 5층인 고령친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응벽 경계로 단절돼 있던 공간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고령자들의 커뮤니티 거점 센터로 조성한다.

또한 생애·ing·맞춤형 주거재생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40가구를 정비해 집수리 실습장 및 마을기업 공간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지막으로, 생애·ing 상권기반 조성에는 보행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대해 상권 특화 보행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상권회복과 인구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내 화분 가꾸기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개선 프로그램과 무주군 사회단체종합회관 지하를 창업이음 공동이용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18년 무주읍·설천면 도시재생예비사업 총 4억 원, 2020년 무주읍,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 148억 원과 설천면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 원, 2021년 설천면,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327억 원 전액 도시재생 분야에 투입할 사업비 약 481억 원으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셈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무주읍에 약 177억 원, 설천면에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집중 투입되면서 쇠퇴 상권 개선 및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도출해 낸 성과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시정 요구 112건, 처리요구 89건, 건의 83건 등 총 284건을 시정·개선토록 하였고, 군정질문에서는 유승열 의원과 윤정훈 의원이 인구절벽 대비를 위한 청년 지원 대책,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며 대책을 요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밑도 높은 심사를 거쳐 총 4,631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7건의 의안들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박찬주 의장은 한 달 간의 정례회를 마치면서 "변화에 움츠러 들지 않고 기회를 찾는 노력과 긴밀한 상호 협치로 무주군정을 보다 높은 발전의 길로 이끌어가기"고 의원들과 집행부에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기본방역수칙 실천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최근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장수를 정찰해 맞춰 장수시장 일대에서 기본방역수칙 실천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 안전재난과, 의료지원과, 한우지방공사,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본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를 배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후 이희성 부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들은 시장내 외식업소와 관내 다중이용시설 6개소를 현장점검하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희성 부군수는 "12월 한달간 방역관리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장수군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희기자

무주군, 도시재생 최우수 지자체·단체장상 수상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서 공동체 화목·사회통합분야 농어촌 부문 대상

무주군이 16일 청주시 문화제조장에서 열린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 도시재생 최우수 지자체·단체장상인 '공동체 화목 및 사회통합분야 농어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무주군은 농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통틀어 도시재생사업으로 꺾직한 성과를 내고 있어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9월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광역공모)이 선정됐으며, '생애·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공모)에 이어 무주읍·안성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공모에 도전해 12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한 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구천

동쌀밭)과 무주읍·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설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단체장상을 받은 바 있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공모)에 이어 무주읍·안성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공모에 도전해 12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군은 2020년 무주읍,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 148억 원과 설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2억 원, 2021년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50억 원으로, 총 30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1년 반 사이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1년 도시재생 최우수 지자체 수상식에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과 같이 군민이 행복할 무주를 만들기 위해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주의 새로운 도약은 지금부터"며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작은 의견도 귀담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의료원 운영 국도비 지원 격차로 지역의료 양극화"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 격차로 인한 지역의료 양극화 해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따르면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는 시설장비 현대화,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약 360억 원의 국도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2

개 부서 전체 예산 중 국비지원은 26%, 도비지원은 4% 정도에 불과하며 매년 75% 이상의 군비를 진료부문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있어 국가나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상 지역 격차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며, "정부가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예방과 보건활동에 치우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만큼, 지방의료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도 무주군 공공시설 운영적자가 130억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적자는 곧 우리 곧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군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16일 청주시 문화제조장에서 열린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 도시재생 최우수 지자체·단체장상인 '공동체 화목 및 사회통합분야 농어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